

# 어린이날,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

### 전주시, 노송광장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식·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 가져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시청 주변이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는 5일 노송광장에서 아동 동반 가족단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식' 및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평소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해온 모범어린이 12명과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 등 총 2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어린이 대표의 '어린이 현장' 낭독에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캠페인도 펼쳐졌다.

구체적으로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아동의 4대 권리와 민법 징계권 조항 폐지, 아동학대 유형 등을 알리기 위한 전시물이 게시됐으며, △4대 권리 바깥개비 만들기 △행복한 공놀이 △인식조사 퀴즈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가 펼쳐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생태놀이터로 변신했다.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참여한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광장 곳곳에 마련된 테마별 놀이터에서 가족,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겼다.

구체적으로 노송광장 곳곳에서는 △아슬아슬 다리 △움직이는 시소 △다빈치브릿지 △알록달록 그림놀이 △알록달록 색칠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미줄놀이 △대형 천을 이용한 보자기놀이 △줄다리기 △물길 만들기 △물총 만들기 등을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위해 마련된 테마별 놀이터와 포토존은 오는 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시청 로비 책가동 도서관에서는 제충만 아동권리전문가의 '놀이를 미래 준비하는 아이들'을 주제로 한 강연도 펼쳐졌다.

이날 놀이주간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 그동안 코로나로 바깥 활동이 많이 어려웠는데 놀이주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놀러왔다"며 "이번 행사처럼 도심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가 펼쳐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생태놀이터로 변신했다.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참여한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광장 곳곳에 마련된 테마별 놀이터에서 가족,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겼다.

구체적으로 노송광장 곳곳에서는 △아슬아슬 다리 △움직이는 시소 △다빈치브릿지 △알록달록 그림놀이 △알록달록 색칠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미줄놀이 △대형 천을 이용한 보자기놀이 △줄다리기 △물길 만들기 △물총 만들기 등을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위해 마련된 테마별 놀이터와 포토존은 오는 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시청 로비 책가동 도서관에서는 제충만 아동권리전문가의 '놀이를 미래 준비하는 아이들'을 주제로 한 강연도 펼쳐졌다.

이날 놀이주간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 그동안 코로나로 바깥 활동이 많이 어려웠는데 놀이주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놀러왔다"며 "이번 행사처럼 도심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가 펼쳐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생태놀이터로 변신했다.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참여한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광장 곳곳에 마련된 테마별 놀이터에서 가족,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겼다.

구체적으로 노송광장 곳곳에서는 △아슬아슬 다리 △움직이는 시소 △다빈치브릿지 △알록달록 그림놀이 △알록달록 색칠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미줄놀이 △대형 천을 이용한 보자기놀이 △줄다리기 △물길 만들기 △물총 만들기 등을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위해 마련된 테마별 놀이터와 포토존은 오는 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시청 로비 책가동 도서관에서는 제충만 아동권리전문가의 '놀이를 미래 준비하는 아이들'을 주제로 한 강연도 펼쳐졌다.

이날 놀이주간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 그동안 코로나로 바깥 활동이 많이 어려웠는데 놀이주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놀러왔다"며 "이번 행사처럼 도심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가 펼쳐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생태놀이터로 변신했다.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참여한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광장 곳곳에 마련된 테마별 놀이터에서 가족,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겼다.

구체적으로 노송광장 곳곳에서는 △아슬아슬 다리 △움직이는 시소 △다빈치브릿지 △알록달록 그림놀이 △알록달록 색칠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미줄놀이 △대형 천을 이용한 보자기놀이 △줄다리기 △물길 만들기 △물총 만들기 등을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위해 마련된 테마별 놀이터와 포토존은 오는 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시청 로비 책가동 도서관에서는 제충만 아동권리전문가의 '놀이를 미래 준비하는 아이들'을 주제로 한 강연도 펼쳐졌다.

이날 놀이주간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 그동안 코로나로 바깥 활동이 많이 어려웠는데 놀이주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놀러왔다"며 "이번 행사처럼 도심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심 정원에 식재된 다양한 식물을 계절별로 세심하게 관리하는 '천만그루 정원친구들'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전주시, 박재희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 세계여행 특강

책여행도시 전주에서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세계도시의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여행작가 초청 특강이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시청 로비 책가동도서관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인문학 여행'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영화와 문학을 중심으로 더블린, 리스본, 파리, 로마 등 세계도시를 함께 여행하는 인문학 여행으로, 여행가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여행작가인 박재희 모모인컴퍼니 대표가 진행을 맡는다.

박재희 작가는 제주 올레길과 산티아고 순례길, 일본 시코쿠길 등 생생한 도보 여행의 경험을 나누는 도보 여행자로, 파스한 위로와 용기를 주며 함께 걷는 듯한 경험을 담은 '산티아고 40일간의 위로', '산티아고 어게인' 등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 작가는 8주간 이어지는 이번 인문학 여행 특강을 통해 다양한 세계 유명도시들을 영화와 문학으로 재해석하고, 참석한 시민들과 여행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변화시킨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내 인생을 바꾸는 인문학 여행' 특강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주 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 또는 책가동도서관(063-230-1845)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전주맛배기' 가정의 달 기념 시식행사 진행

한옥마을 전주식품홍보관, 미나리인절미 무료 제공·전주푸드 농산물 활용 된장국 밀키트 판매

전주 농산물 활용한 가공식품 전시·홍보하는 전주한옥마을 '전주맛배기'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시식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올해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전일(7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식품홍보관인 '전주맛배기'에서 가정의 달 기념 시식행사가 진행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시식행사에서는 전주 대표 농산물인 미나리를 활용한 만든 미나리인절미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전주푸드 농산물과 전주 농식품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전주푸드 농산물을 활용해 최근 새롭게 출시된 된장국 밀키트 2종(시금치·시래기)도 시식행사 기간 동안 판매될 예정이다. 된장국 밀키트 2종은 현재 전주푸드 효점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시식행사 및 판매를 통해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전주 농식품 기업과 전주푸드 참여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천만그루 정원친구들' 출발

전주 곳곳 정원 조성 위해 본격 활동 돌입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가 도시 곳곳의 정원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천만그루 정원친구들'의 활동으로 더욱 풍성해진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심 정원에 식재된 다양한 식물을 계절별로 세심하게 관리하는 '천만그루 정원친구들'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천만그루 정원친구들은 전주시가 양성한 초록정원사 100여 명과 일반시민 및 전주시니어클럽 활동 어르신 150여 명 등 2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3월 총 30시간의 이론 및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정원과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천만그루 정원친구들에 참여한 250여명은 구역별로 그룹을 이뤄 정원지식이 풍부한 초록정원사의 지도 하에 정원관리를 관리하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특히 천만그루 정원친구들은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생활권 주변에 조성된 정원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과 관리로 정원도시 전주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5월 중에는 오는 6월 2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되는 '2022 꽃심,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주박람회장인 전주 월드컵광장 진입도로에 수국, 국화, 구절초 등 18종 2300여 본의 식물을 활용한 정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정원문화가 자연스럽게 시민의 삶에 스며들어 시민이 가장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금암광장과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이 주요 도로가 아름다운 가로정원으로 탈바꿈했으며, 노송마을정원과 어울림정원 등 도시 곳곳에는 시민이 참여해 만든 113개 정원이 새롭게 탄생하기도 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장은 "정원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 많은 정원이 '천만그루 정원친구들'의 세심한 관리를 통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여유와 힐링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면서 "정원교육 우선 참여, 정원산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이들에 지원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주시, 온두레 완산 아울터 공유주방 활용 건강한 식생활 체험 추진

특히 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집에서 요리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온두레 완산 아울터 공유주방을 활용해 시민들과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교육,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먹거리 활용과 채식요리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아중리맘 공동체(대표 최춘경)와 프리데코 공동체(대표 모아름드리) 2곳이 참여한다.

아중리맘 공동체의 경우 △1인 가구·아빠와 함께·가족과 함께 등 대상자 맞춤형 다함께 건강 밥상 프로그램 △채식 베이킹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다문화 세계요리 체험 △로컬푸드에서 구입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탄소중립 요리체험 등을 진행한다.

또한 프리데코 공동체는 탄소중립을 위한 채식요리 수업을 통해 채식문화를 확산시키고, 채식요리 레시피 자료집과 요리수업 동영상도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양명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공유주방 특성을 살려 한옥마을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온두레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